

체면의 심리적 구조¹⁾

최상진 · 김기범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체면은 '남을 대하기에 떳떳한 도리나 얼굴'로 정의된다. 체면을 지킨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도리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부끄러움에는 자신이 자신을 보고 느끼는 자괴성(自愧性) 부끄러움과 남에게 비취진 자신을 보고 느끼는 창피성 부끄러움이 있다. 인간으로서의 도리는 사람 됨됨이라는 도덕적 인격과 연계되어 도덕성·인격 체면으로 귀결되고, 능력에 관계되는 부끄러움은 능력 체면으로 귀결된다. 체면 경험에 관여되는 일반적 심리과정을 자기 귀결성(歸結性) 체면의 심리 과정과 자기 현시성(現示性) 체면의 심리과정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한국 문화에서 체면 행위 표현과 상징 표현의 방식은 규범적 형식성을 갖고 체면 행위 형식은 상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체면의 행위 형식에는 행동뿐만 아니라 상징도 포함된다. 이 밖에도 체면의 욕구 및 그 기능을 설명하였고 체면의 행태적 유형에 따라 분류하였다. 체면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지난 7~8년간 수행해 온 연구들을 종합해 체면의 구조를 파악하였으며, 새롭게 체면 욕구 및 체면 민감성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지난 십 수년 동안 한국인의 의식구조나 특성에 대한 글이나 논문을 고찰해 보면, 한국문화와 한국인의 사회적 행동의 이해나 설명에 있어서 체면은 정(情)이나 한(恨) 못지 않게 중요한 문화심리적 현상으로 부각되고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체면이라는 문화심리적 현상을 다루거나 설명하는 방식에서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체면이 한국인에게만 고유한 현상이라든가 아니면 한국인의 체면이 다른 문화권의 체면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인상을 주는 방향으로 체면이 기술되거나 설명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근래에 중국(Cheng, 1986; Gao, 1996; Gao, Ting-Toomey, & Gudykunst, 1996; Ho, 1976; Hu,

1944), 일본(Gudykunst & Nishida, 1994; Lebra, 1976)을 비롯한 유교문화권의 사람들에게는 물론 서양에서도 체면은 중요한 사회심리적 현상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체면에 대한 타문화 배타적 시각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로는 체면의 특정한 한 형태나 체면의 한 측면적 특성을 놓고 마치 체면 전체를 설명하는 형태를 취하는 과잉 일반화 시각을 들 수 있다. 최상진과 유승엽(1992)은 체면에 대한 고찰을 통해 체면의 형태를 '지위 상응 행위 체면', '자존심 보호 체면', '자기 과시 체면', '치례성 체면', '명분 체면'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틀 속에서 여러 학자들의 체면에 대한 견해가 어떻게 다르며, 어

1) 본 연구는 한국과학재단 특정기초연구(1-521-001-3)지원으로 수행되었음.

면 범주의 체면에 해당되는가를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분석에서 시사하는 바는 학자들이 서로 다른 형태의 체면을 놓고 체면의 일반형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음을 암시한다는 점이다.

셋째로는 체면에 관한 많은 글과 논문들이 일상적 언어 형태로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체면 현상을 서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상대적으로 체면 현상의 개념화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인의 체면이 외국인의 체면과 어떻게 다르며 어떤 특성을 갖는가를 말하기 위해서는 '한국인에게 체면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 즉 체면에 대한 개념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한국인의 체면을 다음과 같은 전제 위에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첫째, 체면은 한국인에게만 고유하게 존재하는 사회·심리적 현상이라기보다는 타문화권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보편적 문화심리현상이다. 그러나 외국인에게도 체면이 중요한 사회심리적 현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한국인의 체면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체면은 한국인의 일상 생활에서 빈번하게 관여되는 사회심리적 현상이라는 점에서 한국인의 문화심리 이해에 필수적이다.

둘째, 체면이 한국 이외의 타문화권에 편재할 수 있다는 것이 곧 한국인의 체면과 타문화권의 체면이 동일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인의 체면과 서양인의 체면은 물론 한국인의 체면과 일본인의 체면간에도 그 성격은 크게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인의 체면 연구는 타문화권의 체면과 과연 다른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를 밝히는 데 필수적인 선행 과정이 된다. 셋째, 한국인의 체면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의 체면 현상 서술 차원을 넘어 체면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개념화와 더불어 이론 구성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앞에서 언급된 세 번째 전제를 지향한 체면의 개념화에 그 일차적 목적을 두고 있다. 필자는 체면에 관한 기존의 논문 및 저술(최상진, 1997b; 최상진·김기범, 1998; 최상진·유승엽, 1992; 최상진·한규석, 1998a; Choi & Kim, 1992; Choi & Kim,

1999c; Choi, Kim, & Kim, 1998)에서 체면 현상 및 체면에 관여되는 심리에 대한 기술적 연구 결과를 정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나 글에서 체면에 대한 개념화가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의 체면 연구에 대한 분석적 고찰과 재구성을 통해 체면에 대한 사회 심리학적 개념화를 시도해 보기로 한다.

체면에 대한 정의에서 '얼굴'의 의미

체면은 몸을 뜻하는 체(體)와 얼굴을 뜻하는 면(面)의 합성어이다. 그 한자어 자체가 뜻하는 것처럼 체면은 '남을 대하기에 떳떳한 도리나 얼굴'로 정의된다(우리말 큰사전, 1994). 여기서 '얼굴'은 내적 자기(內的自己) 즉, 내적 품성(內的品性)의 외적 표현인 동시에 외적 상징이다. 도리에 어긋난 행동을 했을 때 얼굴을 들 수 없다는 말속에는 그러한 행동에 도리를 지키지 않은 마음씨가 관여되었고, 그러한 마음씨 때문에 부끄럽게 느낀다는 함축이 있다. 이때 행동의 작위자(agent)는 마음이며, 부끄러움의 대상은 도리에 어긋난 마음이다. 여기서 행동은 내적 품성의 외적 표현 형이 되며 동시에 내적 품성의 외적 상징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 얼굴은 남이 볼 수 있는 밖의 면이라는 점에서 남에게 보이는(또는 보여진) '바깥 나'이다.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얼굴은 내적 자기의 외적 표현이라는 맥락과 관련시켜 '남이 자기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곧 남이 자신의 내적 자기를 나의 얼굴을 통해 읽는다는 것을 함축한다. 여자가 거울 속에 있는 자신의 슬픈 얼굴을 보고 자신의 슬픈 마음을 확인하는 것처럼, 자신의 얼굴에 해당되는 자신의 외적 행동을 스스로 보고 그러한 행동이 도리에 어긋났다는 인식을 통해 자신의 내적 품성에 하자가 있음을 확인했을 때 생기는 감정의 한 가지 형태는 '자기 부끄러움'이다. 일종의 '자괴성(自愧性) 부끄러움'이다.

자괴성 부끄러움은 스스로 경험한 '염치(廉恥)'에 해당되는 것으로, 유교에서는 예의와 도덕의 기본 심성을 염치의 발달에 두고 있다(최봉영, 1997). 염치가 없는 사람을 흔히 '후안무치(厚顔無恥)' 또는 '안면물

수(顔面沒收)'라 하여, 즉 '얼굴이 두꺼운 사람', '얼굴을 지워 버린 사람'으로 표현하는 것도 바로 얼굴이 염치의 상징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신이 자신을 보고 느끼는 자괴성 부끄러움'과는 달리 '남에게 비취진 자신을 보고 느끼는 부끄러움'이 있다. 남에게 한 행동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행동이 떳떳하지 못하거나 도리에 어긋났다고 느꼈을 때 우리는 창피감을 경험하며, '창피당했다'고 말한다. 여기서 창피를 당한 것은 겉으로 나타난 언행이지만, 실제로 부끄러움의 대상은 자괴성 부끄러움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마음 즉 내적 품성의 취약점(예컨대, 비겁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 등)이다. 여기서 상대의 반응이 부끄러운 마음을 느끼게 만든 것은 그러한 행동의 문제점 암시나 확인을 통해 반성적으로 인식된 행위자의 인품상의 하자이다. 그러나 창피는 단순한 자기 인품상의 하자 인식에 덧붙여, 그러한 하자가 상대에게 노출되는데서 오는 당황감과 이와 연계되어서 결과될 수 있는 자기 이미지 손상, 대인관계상의 불이익 등과 같은 부정적 기대 복합을 함축한다. 이러한 형태의 부끄러움을 여기서는 '창피성 부끄러움'이라고 편의적으로 명명해 볼 수 있다. 우리는 남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부끄러운 행동을 했을 때보다 남이 보는 앞에서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더욱 부끄럽게 느끼고 당황해한다. 따라서 창피성 부끄러움은 자괴성 부끄러움보다 그 강도와 선명도 및 경험 빈도면에서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끄러움을 느끼는 심리 기제면에서는 이 두 가지 형태의 부끄러움간에 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또한 이 두 가지 부끄러움은 반드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창피성 부끄러움은 자괴성 부끄러움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괴성 부끄러움이 수반되지 않는 창피성 부끄러움은 자존심의 손상으로 연결되지 않는 부정적 자기 노출에 불과하다. Cooley(1902 - 1964)의 '거울 앞 자기(looking-glass self)' 이론을 여기에 원용해 보면, 창피성 부끄러움은 자괴성 부끄러움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창피성 부끄러움에는 부정적 자기(否定的 自己)에 대한 자기 인식의 차

원을 넘어 사회적 도덕성 및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추가적, 정서적 부담을 안겨주는 사회-정서적 의미가 추가된다. 따라서 창피성 부끄러움은 자괴성 부끄러움보다 더욱 생생하고 높은 감정적 관여속에서 경험된다. 엄밀한 의미에서 자괴성 부끄러움도 실재하지 않는 상대를 마음 속에 전제한다는 점에서 창피성 부끄러움의 성격을 어느 정도 지닌다. 사회심리학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사람들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자극에도 관여하고 반응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처럼, 우리는 남이 보지 않는 앞에서도 자신이 한 비도덕적 행동에 대해 창피감을 느끼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

부끄러움의 심리 현상을 중심으로 얼굴이 가지는 두 가지 의미 즉 자괴성 부끄러움과 창피성 부끄러움을 보다 보편적인 심리학적 개념인 자기(self)와 연계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괴성 부끄러움은 자신의 내적 품성을 행동이라는 거울을 통해 반성적으로 확인한다는 점에서 반성적 내적 자기(reflective internal self)라고 볼 수 있으며, 창피성 부끄러움은 상대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내적 품성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반사적 내적 자기(reflected internal self)라고 볼 수 있다. 이론적으로 볼 때 체면은 이 두 가지 형태의 자기 인식 과정을 모두 포괄하나 체면이라는 말이 쓰이는 맥락에 따라 이 두 과정간의 관여경중이 달라진다.

예의염치에 초점을 둔 유학 전통에서의 체면은 곧 인격의 성숙과 연결되며 따라서 체면을 지킨다 함은 사람의 도리를 다함을 뜻한다. 인격의 성숙으로서의 체면에서는 창피라는 외부적 과정보다는 스스로의 자기 성찰과 자기 반성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반성적 내적 자기를 강조한다.

한편 사회적(타인의) 평가에 관심을 두는 일반인의 일상적 생활 속에서의 체면에서는 인격의 성숙이나 자기 반성보다는 자신에 대한 세속적 평가를 중시한다. 다시 이 두 가지 형태의 체면을 자기(self)의 지향성과 관련시켜 보면 전자의 체면은 사적 자기(private self)에, 후자의 체면은 공적 자기(public self)에 해당된다.

또한 체면을 일본인의 행동 특성과 관련시켜 볼 때

전자의 체면은 혼네 또는 소토에, 후자의 체면은 다테마에 또는 우라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를 서구의 자존심 및 자기 연출(self-presentation)과 관련시켜 볼 때, 전자의 체면은 그 지향성에서 자존심(self-esteem) 추구적이고, 후자의 체면은 자기 연출(self-presentation)을 통한 체면 유지(face-saving) 지향적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체면의 두 가지 차원: 도덕성 체면과 능력 체면

국어사전(우리말 큰사전, 1994)에서 '부끄럽다'는 '양심에 거리낌이 있어 남을 대하는 것이 떳떳하지 아니다'로 정의되고 있으며, 체면은 앞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남을 대하기에 떳떳한 도리나 얼굴'로 규정되고 있다. 이 두 단어의 사전적 정의에 근거하여 부끄러움과 체면간의 관계를 보면 '떳떳'이라는 심리적 상태를 매개적 과정으로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끄러움은 부정적 방향의 떳떳을, 체면은 긍정적 방향의 떳떳을 그 심리적 매개 과정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이 두 개념간의 연계적 관계성을 설정해 볼 수 있다. 즉 도리에 맞는 행동을 하여 체면이 차려지거나 세워질 때 떳떳한 감정이 경험되고 체면이 서거나 세워지며, 반대로 양심에 거리낌이 있어 떳떳하지 못할 때 부끄러움이 생기고 체면이 깎이거나 떨어진다. 일반인의 일상생활에서도 떳떳하지 못한 행동이 남에게 노출되었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일반적이며, 부끄러움 없는 행동은 떳떳한 행동이 된다. 위의 정의에서 부끄러움이나 떳떳함을 결정하는 준거는 양심이다. 즉 양심대로 행동하였을 때 떳떳한 행동이 되며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 부끄러움이 생긴다. 여기서 양심은 인간으로서의 도리와 도덕적 선악과 관계된 마음 틀을 뜻한다. 위의 말을 풀이해 부연하면, 자신이 생각한 인간으로서의 도리와 도덕성에 적합한 행동을 했다고 스스로 믿을 때 떳떳한 감정을 갖게 되며, 반대로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마음 틀에 내재된 인간으로서의 도리와 도덕성에 적합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스스로 판단할 때 나쁜 사람이라

는 자의식과 더불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

체면과 부끄러움의 사전적 정의에 대한 앞의 분석을 통해 체면이라는 개념의 속성을 추론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체면을 지킨다는 것은 자신이 생각한 인간으로서의 도리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둘째, 여기서 인간으로서의 도리는 양심과 관계된 것으로, 도리에 맞는 행동을 했을 때 떳떳한 감정을, 반대로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고 스스로 믿을 때 떳떳하지 못한 감정 즉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

셋째, 소위 양심과 관계된 인간으로서의 도리는 사람 됨됨이라는 도덕적 인격과 연계되는 행위의 도덕적 규범이다. 우리는 도덕적 인격이 결핍된 사람을 '나쁜 사람' 또는 '못된 놈'이라 부르며, 그 반대로 도덕적 인격이 갖추어진 사람을 '좋은 사람' 또는 '괜찮은 놈'이라 부른다. 유교문화권인 한국에서 좋은 사람은 도덕적인 인격을 갖춘 사람을 뜻하며, 유교에서 도덕적인 인격을 갖춘 사람은 예의염치(禮義廉恥)를 아는 사람이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예(禮)를 못 갖추거나 의(義)를 행하지 않거나 염치(廉恥)가 없는 행위를 했을 때 사람답지 못함과 부끄러움을 느끼며, 그러한 사람을 일컬어 나쁜 사람이라 한다. 따라서 체면에 대한 사전적 정의에서 '떳떳하다'함은 예의염치에 어긋나지 않음을 인식할 때 생기는 마음의 상태이며, 부끄럽다의 정의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있다'함은 예의염치에 벗어나는 행동을 했다는 자의식에서 오는 떳떳하지 못한 마음 상태를 뜻한다. 여기서 체면과 부끄러움간의 심리기제적 공통성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즉 이 두 개념은 떳떳한 마음을 매개축으로 한 상반된 심적상태이며, 이러한 떳떳한 마음(체면) 또는 떳떳하지 못한 마음(부끄러움)은 예의염치의 도덕적 판단에서 생긴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에서 제시한 자괴성 부끄러움은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자괴성 부끄러움은 예의염치에 어긋나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떳떳하지 못함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껴 발생하는 자기 반성적, 부정적 '대(對) 자기 감정'이다. 따라서 자괴성 부끄러움이 활발하게 경험되기 위해서는 도덕적 인격에

대한 자기 반성 능력과 이에서 일탈되었을 때 나타나는 양심의 가책이 개인의 심리 및 성격 구조 속에 발달되어 있어야 한다. 이 점에서 체면과 부끄러움은 도덕성 발달의 바탕 구조물(infrastructure)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형태와 방식으로서의 체면과 부끄러움은 앞에서 언급된 도덕중심적-자피성 부끄러움과는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자피성 부끄러움과 창피성 부끄러움의 측면에서 검토해볼 때 일상생활에서의 체면과 부끄러움은 자기 반성적 자피성 부끄러움보다는 자신의 부끄러운 행위가 남에게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상대의 반응을 통해 부끄러움을 느끼는 반사적 창피성 부끄러움이다. 즉 부끄러움의 경험 과정에 상대의 반응이 개입된다. 따라서 창피성 부끄러움을 느낄 때 우리는 '남부끄럽다'는 말을 쓰기도 한다.

우리 속담에 '멍석 깔아 놓으면 하던 지랄도 안한다'는 말이나, '큰 무당이 있으면 작은 무당이 춤을 안춘다'는 말속에는 '남부끄러움'을 느낄 소지가 있는 상황 즉 여러 사람이 보는 상황 즉, 멍석을 깔아 놓은 상황이나 큰 무당이 있는 상황에서는 남부끄러움을 당할 소지가 크며 따라서 행동을 조심하게 된다는 것을 함축한다. 즉 우리가 보통 느끼는 부끄러움은 스스로 느끼는 '자기 부끄러움'보다는 남을 통해 또는 남 앞에서 느끼는 남부끄러움이며, 따라서 창피성 부끄러움이다.

다음으로 예의염치 중심의 도덕성과 양심성을 준거로 한 체면과 부끄러움의 사전적 정의에 대해 검토해보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전적 정의로서의 체면과 부끄러움은 도덕적으로 자신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에 대한 자기 판단이 중심적으로 관여된다. 그러나 체면이라는 말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맥락에서 보면 이러한 도덕적 준거 이외에 능력이나 신분-지위가 부끄러움 경험의 준거적 원천이 되기도 한다. 예컨대, 입학 시험에 떨어진 당사자나 당사자의 부모가 남부끄럽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피하는 경우, 높거나 명분 있는 지위에 있지 못하거나

훌륭한 직장에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이 친구 만났다가 창피하다는 이유로 동창회에 나가지 않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밖에도 경쟁에서 졌을 경우, 경제적으로 빈곤한 경우, 심지어는 학벌이 없는 배우자를 만났을 경우에서까지도 남부끄러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의 남부끄러움의 원천 중에는 능력과 관계된 것이 많다. 이러한 능력 관련 부끄러움의 준거 원천들의 기저에 있는 심리기제는 자기 자신이 '똑똑하지 못한 사람', '변변치 못한 사람', 또는 '바보같은 사람'이라는 자기 열등 의식이며, 이의 일상적 언어 표현은 '나는 못난 놈'이다. 여기서 못난 놈이라는 말은 능력이 없거나 떨어지는 사람을 뜻한다. 앞서 언급된 도덕성의 결여에서 오는 부끄러움을 '도덕성 부끄러움' 또는 '못된 놈 부끄러움'이라 한다면, 지금 설명하고 있는 능력의 결여에서 오는 부끄러움은 '능력 부끄러움' 또는 '못난 놈 부끄러움'이다.

우리는 일상의 대화에서 자신의 무능에 대해 남이 무시하거나 나무랄 때, '못난 것도 잘못이냐'라는 항변적 대응을 하기도 한다. 이 말속에는 못난 것은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실제의 일상생활에서는 못난 것도 부끄러움의 대상과 체면 손상의 준거적 원천이 된다. 앞에서 도덕성 부끄러움과 관련된 도덕성 체면에서는 도덕성을 충족시키는 행위 즉 도리에 맞는 행위를 했을 때 떳떳함 즉 체면이 서거나 지켜졌음을 느끼며, 반대로 도덕성에 저촉하거나 미흡한 행위를 했을 때 부끄러움 즉 체면이 떨어지거나 체면의 손상을 느끼게 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능력상의 우월성이 현시되는 행위를 했을 때 우리는 '체면이 섰다' 또는 '체면 세웠다'고 말한다. 소위 자신의 신분이나 지위를 상징을 통해 밖으로 나타냄으로써 자신의 지위-신분 유관 능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내려는 과시 체면이 한국인에게 많다(한국인 진단(1991)에서 '호칭 인플레이가 심하다', '자기 과시 지나치다'의 절; 최재석, 1994; 최상진·유승엽, 1992)는 견해는 긍정적 방향의 능력 체면도 부정적 방향의 능력 체면 못지 않게 능력 체면의 중요한 영역이 됨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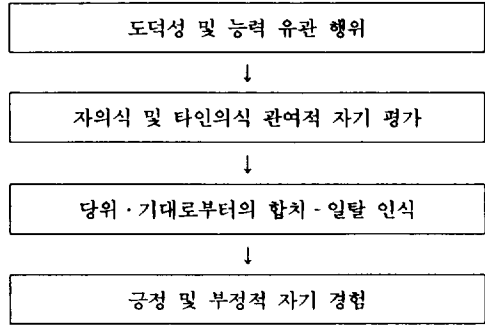
긍정적 능력 체면에는 체면을 의식하지 않고 한 어떤 행위가 행위자의 능력과 연계되어 '똑똑하다', '능력이 있다' 등의 자의식으로 자기 경험될 때 생기는 '자기 귀결성 능력 체면'이 있는가 하면, 능력 체면 의식이 발동 또는 관여되어 능력 체면 관련 행위를 의식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자기 현시성 능력 체면'이 있다. 자기 현시성 능력 체면 행위는 흔히 '우쭐댄다', '잘난 체한다', '목에 힘준다', '거들먹댄다', '뼈긴다' 등과 같은 말로 표현된다.

최상진·박정열 및 이장주(1997)는 한국인의 사회심리특성의 하나로 '우쭐심리'를 들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기제 심리면에서 체면 심리와 우쭐심리 간의 공통점을 밝혀낸 바 있다. 즉 체면과 우쭐심리는 공통적으로 긍정적 자기 경험과 자기에 대한 타인의 긍정적 평가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덕성 체면에 있어서도 우쭐심리는 작용할 수 있다. 소위 공의(公義)를 앞세우는 '명분 체면'은 도덕적 자기 우월성을 지키려는 측면도 있지만 공의를 현시함으로써 자신의 도덕적 자기 우월성을 나타내 보이려는 '자기 현시성 도덕성 체면'의 동기가 관여될 수 있다.

그러나 도덕적 우월성을 과시하려는 우쭐심리보다는 능력적 우월성을 과시하려는 우쭐심리가 보다 보편적으로 나타나며, 자기의 우월성을 의식하려는 자의식이나 무의식속에 보다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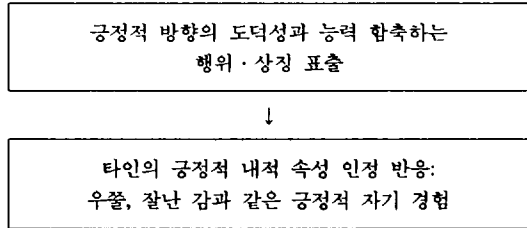
지금까지 앞서서의 체면에 대한 분석에서는 체면의 준거 원천에 따라 도덕성 체면과 능력 체면을 구분하여 설명하였고, 다시 이 두 차원의 체면의 방향성에 따른 긍정적 체면과 부정적 체면의 심리적 경험을 분석하였다. 체면 경험에 관여되는 일반적(generic) 심리 과정을 귀결성 체면으로 보고 이를 도식으로 표현하면 그림 1과 같다.

자기 현시성 체면(자기 현시성 능력 및 도덕 체면)은 귀결성 체면의 변형으로, 체면 경험 과정에 관여되는 기본적 심리 과정은 동일하나, 행위자의 행위 유발 동기가 적극적으로 작용하여 긍정적 체면 경험 지향적 행위나 상징 표출을 통해 타인의 긍정적 평가 반응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긍정적 자기 경험을



〈그림 1〉 자기 귀결성 체면의 심리 과정

체験한다는 점에서 소극적 성격의 귀결성 체면과 구분된다. 자기 현시성 체면의 심리 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자기 현시성 체면의 심리 과정

지금까지 위에서 체면의 준거 원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두 가지 유형의 체면 즉 도덕성 체면과 능력 체면을 도출하고 체면의 방향성과 관련하여 긍정적 방향의 체면과 부정적 방향의 체면을 검토하였다. 체면의 두 가지 차원과 두 개의 방향이 교차해서 구성되는 네 가지 형태의 체면을 일상의 속된 말 형태로 표현해 보면 '나쁜 놈(못된 놈) 체면', '좋은 놈(괜찮은 놈) 체면', '못난 놈 체면', '잘난 놈 체면' 등이다. 여기서 '나쁘고-좋고, 못났고-잘났고'가 체면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안의 행위가 당위(마땅히 그러해야 함)나 기대(expectation)로부터의 일탈(긍정적 방향과 부정적 방향)이나 또는 그 행위와 당위 또는 기대와의 합치 여부에 대한 자의식이나 자기 인식이 개입되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당위나 기대의 못 미치는데서 오는 수치감 즉 부끄러움은 흔히 경험하는 일이다.

그러나 어떤 행위이건 당위와 불합치하거나 기대에 못 미친다는 자의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수치감을 느끼지는 않는다. 사회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중요시하는 당위나 기대일수록 체면에 관여될 가능성은 커진다. 이를 자기(self)와 관련시켜 설명해보면, 자기 구성(construction of self)에 관여될 소지가 있는 사안에서의 당위 및 기대 이탈 또는 충족이 자의식 되었을 때 체면이 관여될 가능성은 커진다. 여기서 자기 자신의 당위나 기대가 타인 및 사회의 당위나 기대와 일치할 때 자기 및 체면 관여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체면에서의 형식성과 상징성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체면은 한국인의 문화적 심리 구성이며 한국사회의 중요한 문화적 사회 현상이다. 즉 체면은 마음 속에도 있고 사회 속에도 있다. 그러나 체면의 '얼굴성' 분석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마음 속 체면에도 타인의 평가가 관여되는 사회 반사적 내적 자기가 반영된다는 점에서 체면은 사회적 현상성을 담지하고 있다.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체면 문화로 규정한다고 할 때 그 말속에는 체면이 한국사회에서 중요시되고 동시에 체면에 관계된 상징-의미 체계 및 행위 규칙이 한국사회에 발달된 형태로 내재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체면과 관계된 보편적이며 일상적인 표현들, 예컨대 '체면 지킨다', '체면 차린다', '체면 세운다', '체면 세워준다', '체면치레한다' 등과 같은 표현에서, '지키고', '차리고', '세우고', '세워주며', '치레하는' 행위와 상징이 무엇이며 그러한 행위 표출과 상징 표현의 의미 및 과정에 대한 문화적 공유 체계가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즉 체면의 사회문화적 행위-의미 도식 체계가 공유되고 통용될 때에 체면은 문화적 현상으로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체면 행위 표출과 상징 표현의 방식은 규범적 형식성을 갖는다. 마치 식탁을 차리거나 제사를 지낼 때 예(禮)의 형식이 있는 것처럼 체면 행위에도 형식성이 있다. 문화적 형식성은 일반적으로 형식 그 자체에 목적이 있기보다는 형식 속에 함축되는 의미를

배경으로 그 기능성이 담지된다. 예컨대, 뒷사람에게 두 손으로 술을 따를 때 두 손으로 따른다는 것은 상대에 대한 존경과 예의를 함축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본래의 의미가 희석되거나 의미의 중요성이 약화되고, 오히려 형식성이 그 자체로 중요성을 갖는 기능적 자동화(functional autonomy)도 일어날 수 있다.

윤태림(1984)은 한국인의 체면을 형식주의로 규정한 바 있으며, 따라서 체면을 사실과 달리 걸치레적인 행동으로 파악하고 있다. 윤태림이 본 한국인의 체면은 즉 형식주의와 걸치레적인 체면은 도덕적 인격 체면보다는 바깥으로 드러나는 형식에 치중하는 체면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러한 말속에는 체면에 형식이 있음을 지칭하며, 이러한 형식은 기능적 자동화 과정을 통해 그 본래의 의미나 목적과 관계없이 스스로 기능성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체면은 일반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 남을 통솔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종교적 의식을 주관하는 사람 등에게 중요시되며, 이들에게 체면에 대한 자기 자신 및 타인 민감성이 높다(최상진·유승엽, 1992). 체면에 형식성이 있다면 이들의 체면 형식 부합 행동에 대한 자의식과 사회적 기대가 높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추론은 최상진 등의 연구에서 지지된 바 있다. 즉 위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일수록 언행을 조심하고 거짓말을 하지 말며, 신뢰성을 갖게 하는 행위 형식을 남에게 취해야 한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그 구체적 행위 형식이 무엇이나는 상대와 상황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먼저 상대에 따라 자신의 체면 행위 형식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는 상대에 대한 자신의 인물 규정(personality positioning)이 무엇이나에 따라 결정된다. 예컨대, 한 교수가 학생 앞에서는 교수로, 자식 앞에서는 아버지, 공중 앞에서는 지식인으로, 사회적 상황 속에서는 신사로 인물 규정될 때 그 교수의 체면 행위 형식은 달라진다. 또한 상황에 따른 체면 행위 형식은 관여된 자신과 상대가 그 상황을 어떻게 공구성(共構成, co-construction)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위 상하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지위

의 관계가 지켜지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그 상황을 공구성했을 때 지위·신분·인격 맥락이 양자간에 구성되고 따라서 이에 맞는 지위 체면 행위 형식을 취하게 된다. 반대로, 이들이 지위·신분을 떠난 동등한 인격 맥락을 구성했을 때 인격 체면 행위 형식이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처럼 상대와 상황에 따라 공구성된 자신의 인물 규정과 상황 맥락에 적합한 체면 행위 형식을 따랐을 때 우리는 자신이나 상대의 체면이 차려지거나 세워지고 지켜지며 자신에게 걸맞는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체면 행위 형식에 걸맞는 행동을 의식해서 하는 것을 일상적인 말로 '체면 차린다'라고 말한다. 여기서 '차린다'는 형식을 갖춘다는 함축과 더불어 '의식적으로 한다'와 '밖으로 노출한다'의 의미를 동시에 포괄한다. 즉 형식성, 의식성(儀式性)과 노출성을 복합적으로 함축한다. 따라서 체면을 지나치게 차리면 위선적이며 지나치게 형식지향적인 행동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차리는 체면의 형식성, 의식성, 노출성을 공통적으로 함유하는 체면의 또 한가지 형태는 '체면치레' 또는 '치레적 체면'이다.

치레라는 말 자체가 형식성과 의식성, 노출성을 나타내는 것처럼 상대와의 관계 및 상황 맥락에서 요구되고 기대되는 체면 차리기와 세워주기 행위를 소극적인 형태로 행함으로써 최소한의 체면 형식만을 의례적으로 갖추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마음에 내키지 않는 행위를 체면치레로 하게 되는데는, 비록 체면치레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체면 차리기와 상대의 체면 세워주기에 긍정적 기능을 갖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상대와 자신과의 관계 및 상황 맥락적으로 보아 체면치레 행동만으로도 자신과 상대의 체면을 차리거나 또는 손상시키지 않을 최소한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위에서는 행동을 중심으로 한 체면의 행위 형식을 다루었다. 그러나 체면의 행위 형식에는 행동뿐만 아니라 상징도 포함된다. 예컨대, 우리 나라 국회의원이 금뱃지를 달고 다니는 것은 체면 상징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체면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유명 상표의 의류 착용 심리나 외제차 선호와

관계된 자기 현시성 체면에서는 지위·신분 상징의 외부 표출을 통해 자신의 우월한 지위·신분과 더불어 여기서 함축되는 능력이나 인격의 우월성을 외부의 반응을 통해 스스로 경험 또는 확인하는 체면 행위 형식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자기 현시성 체면에서 실제로 현시 할만한 지위·신분이나 능력·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위선적 또는 위장적으로 체면 상징을 표출함으로써 자신의 지위·신분이나 능력·인격을 외부로부터 허위적으로 인정받거나 경험하는 '자기-위장 현시성 체면'에서도 체면 상징 표출을 통한 체면 행위 형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체면 상징을 포함한 체면 행위 형식은 문화권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또한 그러한 행위 형식과 관련된 해석의 방식, 즉 인격과 능력으로의 연계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어른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형식이 일본에서는 도덕적 인격과 연계되지 않으나 한국에서는 도덕적 인격으로 연계된다. 또한 한국에서는 젊은 사람이 어른 앞에서 술잔을 비울 때 몸을 돌리는 것이 긍정적인 도덕적 인격으로 해석되나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그러한 행위 형식이 도덕적 인격으로 연계되지 않는다.

체면 욕구와 체면의 기능

앞에서 체면을 도덕성 인격체면과 능력체면의 두 차원과 그 방향성에 따라 네 가지 형태의 체면 즉, 못된 놈-좋은 놈 체면과 못난 놈-잘난 놈 체면을 구분하였다. 이를 체면욕구와 관련시킬 때, 체면욕구는 도덕적 인격상에서 못되지 않은 또는 좋은 사람이 되려는 욕구와, 능력면에서는 못나지 않은 또는 잘난 사람이 되려는 욕구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부정적 방향의 체면, 즉 못된 놈과 못난 놈이라는 자기인식은 부끄러움을 유발하고, 긍정적 방향의 체면, 즉 좋은 놈과 잘난 놈이라는 자기인식은 떳떳함과 자부심(우쭐감)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체면욕구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떳떳한 마음과 자부심을 가지려는 심리 경험적 욕구로 수렴해 볼 수 있다. 부끄러움, 떳떳함, 자부심과 같은 심리적 경험은 자기 반성적 자기평가

보다는 타인 반사적 자기평가를 통해 체험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예컨대, 자기 부끄러움보다는 남부끄러움이, 자신 스스로 업수이여기는 것보다는 남으로부터 업수이여기를 당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다. 타인 반사적 자기평가를 통한 부끄러움 또는 떳떳하지 못함이나 자부심은 자기 반사적 자기평가에서 결과되는 심리경험에서와는 달리 자신의 부정적 자기측면이 남에게 노출되었다는 점에서 체면행위와 연계되어서 수반되는 사회적 반대급부가 크며 따라서 체면행위에 대한 자의식이 강하고 민감하게 관여된다.

따라서 체면은 자기 자신의 도덕성과 능력을 성숙·고양시키려는 자기완성욕구와 동시에 남으로부터의 승인과 인정을 받으려는 사회적 성취욕구라는 두 가지 측면의 욕구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에게 체면이 발달되었다는 말은 체면의 기저욕구 면에서 자기 완성적 욕구보다는 남으로부터의 승인과 인정의 사회적 성취욕구가 강한데서 체면의식이 발달되었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한국인의 체면과 관련해서 기존의 연구들은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체면의 외향적 측면, 과시성 측면, 권위적 측면, 타인 의식적 측면, 차례적 측면을 강조하거나 이에 초점을 두어 한국인의 체면을 정의하고 있다. 이는 한국인의 체면욕구가 사회성취지향적임을 시사하며 최상진 등(1992)은 이러한 체면을 지위·신분 체면으로 명명한 바 있다.

여기서 지위와 신분이 긍정적 체면의 준거로 작용하게 되는데는 지위와 신분이 높다는 것이 도덕성 인격과 능력이 우월함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즉 한국인의 머리 속에, 동시에 한국의 문화 속에 내재된 지위·신분·인격·능력 균형관에서 이러한 해석이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지위와 신분은 이러한 체면 세마에 따른 해석을 거치지 않고 그 자체로 체면의 준거원천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 도덕적 인격이나 능력의 측면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행동을 했을 때 우리들은 “그 사람 ~감이 아니다” 또는 “그 사람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이 못된다”라고 말함으로써 그러한 사람을 예외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 간주한다.

여기서 자기완성적 욕구에 기초한 체면을 ‘인격적 체면’이라 한다면, 사회적 성취욕구에 기저한 체면을 ‘사회적 체면’이라 명명할 수 있다. 우리말에서 체면과 관련해서 “낮 뜨겁다”,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 “고양이도 낮짝이 있지”, “낮 두껍다” 등과 같은 말이 있다. 이러한 표현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서의 도리(道理), 즉 자신의 도덕적 인격에 하자가 생겼을 때 흔히 사용한다. 이러한 표현에서의 공통적 특징은 얼굴(face)을 도덕성과 연계시킨다는 점이다. 반면 남을 강하게 의식하는 사회적 체면은 얼굴보다는 몸(體)을 체면의 상징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지체, 체통, 위신, 체신 등과 같은 말은 모두 몸이라는 말을 중심으로 구성된 말이며 이러한 말들은 모두 지위·신분에 따른 권위, 인격, 능력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체면의 성격을 강하게 함축하고 있다. 얼굴은 벌거벗은 것이란 점에서 내적 자기(內的 自己), 즉 내재적 인격이라 한다면, 몸은 옷 또는 의관이라는 지위·신분상징을 걸친다는 점에서 외적 자기(外的 自己), 즉 지위와 신분 및 이에 따른 권위 및 인격을 함축한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Goffman(1967)이 말하는 서양인의 face는 사회적 체면보다는 인격적 체면에 가까운 체면이며, 따라서 대인상호작용에서 거래(negotiation) 과정에서의 face-work을 통해 만들고, 고치고, 조정하는 공구성(co-construction)적 체면의 성격이 강하다. 반면 한국인의 사회적 체면은 거래를 통한 공구성적 측면보다는 지위, 신분, 학벌 등과 같은 지위·신분상징에 자동적으로 부착된 권위와 능력에 근거하는 경향이 크다는 점에서 귀속적(ascriptive)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 물론 한국인의 인격적 체면은 서양인과 마찬가지로 공구성적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지킬 수도 잃을 수도, 세울 수도 구길 수도 있다.

중국인의 체면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하나는 얼굴(face)에 해당하는 *lian*과 이미지(image)에 해당되는 *mian zi*이다. *lian*은 도덕적 인격성을 함축하는 체면이며 *mian zi*는 사회적 성취와 결부된 권위와 능력을 배경으로 한 체면이다(Cheng, 1986; Ho, 1976; Hu, 1944). 여기서 중국인의 *lian*은 한국인의 인격체

면에, 중국인의 mian zi는 한국인의 사회적 체면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한국인의 체면구조와 중국인의 체면구조 간에 매우 높은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일본인에게도 체면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일본인의 체면인 mentz는 자기 현시성 체면보다는 자기 방어성 체면에 더 큰 비중을 두며, 수치(羞恥)가 중요한 체면 준거 원천이 된다(Lebra, 1976). 수치감은 도덕적 인격성의 하자보다는 집단적 명분이나 의리를 저버리는 행동에 더욱 민감하게 나타나며, 사회적 관계에서의 체면은 본심인 혼네보다는 일본인의 사회적 교류방식인 다테마에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다는 점에서 의례(儀禮, ritual discretion)적 측면의 체면성이 높다. 따라서 일본인의 체면은 개인수준의 인격체면의 측면보다는 집단수준의 명분체면성이 높다는 점에서 한국이나 중국과도 다르며 서양과도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체면의 기능은 체면의 욕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앞에서 한국인의 체면욕구를 인격적 성숙욕구와 승인과 인정의 사회적 성취욕구로 개념화하였다. 이 두 가지 욕구는 도덕-인격적 자기와 능력자기의 구성과 자기개념(self-concept) 형성에 핵심적 요인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체면은 인성(人性)의 형성에서 핵심이 되는 요소이고, 심리 과정이 되며 따라서 체면의 발달은 곧 인격의 발달과 사회성의 발달에 직결된다. 왜냐하면 체면은 일종의 자기반성체계이며 자기제어체제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의 내적 품성이나 능력과는 관계없이 체면이 지위나 신분의 획득과 현시에 집착되거나 인격과 능력의 과장이나 과도하게 치례성 중심적일 때, 체면과 체면심리는 부정적 방향의 인성형성과 인격의 발달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체면은 긍정적 및 부정적 기능의 양면성을 갖는다.

다른 한편,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체면, 즉 남 앞에서 체면을 차리거나 남의 체면을 세워주는 체면행동은 상호의 자존심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계를 원활하게 한다. 그러나 자신의 체면을 지나치게 내세우거나 상대의 체면을 깎아 내리는 행동을 할 때 이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체

면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는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체면의 이와 같은 긍정적, 부정적 기능과는 상관없이 체면은 우리 사회에 현실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중요한 사회적 현상의 하나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기능적이다. 만일 체면이 부정할 수도, 간과할 수도 없는 사회적 현실이라면 앞에서 제시한 체면의 부정적인 측면은 약화, 감소시키며 긍정적인 측면은 증장시키는 방향으로의 노력이 개인 및 사회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체면의 행태적 유형

지금까지 앞의 논의에서 체면의 여러 가지 행태적 유형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우선 긍정적 체면은 누구나 스스로 추구하고, 부정적 체면은 누구나 회피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할 때, 사회적 상황에서의 체면의 행태는 크게 두 가지로 개념화 할 수 있다. 하나는 자신의 체면을 지키고 세우는 행태이며, 다른 하나는 상대의 체면을 지켜주고 세워주는 행태가 있다. 지키고 지켜주는 체면은 부정적 체면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세우거나 세워주는 체면은 자신이나 상대의 긍정적 체면을 발생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체면이 작위되는 맥락은 '누가 누구 앞에서 체면을 지키거나 세운다' 또는 '누가 누구의 체면을 지켜주거나 세워준다'는 말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체면의 당사자와 피당사자가 반드시 관여된다. 이 때 체면의 작위 행태는 두 사람간의 지위·신분관계, 지(知) - 부지(不知) 및 친소관계와 더불어 주변에 제 3자의 재(在) - 부재(不在) 및 제 3자와 당사자들 간의 관계성은 물론 체면심리 및 행위가 관여되는 상황 등 다양한 요인이 역동적으로 관여된다. 만일 관여된 체면 당사자와 피당사자가 서로 상대의 인적상황, 예컨대 신분·지위, 인격 및 능력 등을 익히 잘 알고 있는 경우나 체면이 친밀관계에 장애가 되는 비공식적 상황이나 사교적 상황에서는 체면 심리 및 행위가 약화되거나 발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체면은 공식적 상황이나 소원한 인간관계 상황 또는 상호 부지(不知)의 공공상

황에서 작동될 가능성이 높다. 일상생활에서 발현되는 체면의 행태는 크게 다음과 같이 5개의 행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지키는 체면: 자신의 지위나 신분에게 맞는 체면 행위 형식을 따름으로써 자신의 신분·지위와 체면 피당사자의 자신에 대한 인격 및 능력의 기대수준 간의 괴리지각을 방지하거나 이 둘 간을 합치시키는 행태의 체면을 말한다.

2) 지켜주는 체면: 상대의 지위·신분에서 기대되는 체면 행위 형식을 상대에게 취해 보임으로써 상대 및 재석(在席)한 제 3자에게 상대의 지위·신분이 높음과 상대가 지위·신분에 맞는 인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이 인식·의식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상대 및 제 3자에게 암시해주는 체면 행위 형식을 취하는 행태의 체면을 말한다.

3) 세우는 체면: 자신이 자신의 지위·신분에 걸맞는 인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란 것을 상대방에게 암시하려는 동기가 관여되어 자신의 지위·신분과 인격·능력에 걸맞는 체면 행위 형식을 의식적으로 취하는 행태의 체면을 말한다.

4) 세워주는 체면: 자신이 상대의 능력 및 인격이나 신분·지위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은 하되 경시한다고 상대가 자신에 대해 느끼는 상황에서, 또는 재석한 제 3자가 상대의 신분·지위와 인격·능력에 대해 무지 또는 경시한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상대의 지위·신분과 인격·능력이 높다는 것을 간접으로 함축하는 체면 행위 형식을 취하는 행태의 체면을 말한다.

5) 치레 체면: 상대와의 기존관계와 상황맥락으로 보아 자신이 도리적으로 체면을 차리지 않거나 상대의 체면을 세워주지 않으면 자신이나(또는 자신과) 상대의 체면이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본심과는 괴리되나 최소한의 예의성과 의례성을 갖춘 체면형식행위를 취하는 행태의 체면을 말한다. 치레 체면에는 예의상 행하게 되는 '예의성 치레 체면'과 상황맥락에서 요구되는 체면 행위 형식을 취하는 '의례성 치레 체면'이 있다. 전자의 예는 참석하고 싶지 않는 경조사에 얼굴만을 잠깐 내밀므로써 그저 다녀

간 것만으로 상대방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경우이며, 후자의 예는 대화의 맥락에서 호감이 가지 않는 상대라고 해서 상대에게 좋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 마음에 없는 덕담을 의례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치레적 체면은 형식적 예절성과 대인간의 관계가 중시되는 유교문화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체면의 형태이다. 상대 배려적인 일 본인의 다테마에, 한국인의 체면치레, 중국인의 mian zi는 치레적 성격이 강한 체면의 문화적 양상들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문화에서 체면의 의미와 차원, 형식성, 상징성, 욕구 및 기능과 형태적 유형을 살펴보았는데, 대학생들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 체면의 구조와 욕구 및 민감성을 측정해 보기로 한다.

방 법

본 연구는 지난 7~8년 동안 이루어졌던 체면에 관한 연구들 중 체면 척도와 체면 욕구 및 민감성 척도 개발을 위해 실시되었던 연구들을 종합한 것이다. 대학생들과 일반성인들(직장인)을 대상으로 1991년, 1994년, 1998년, 1999년에 걸쳐 실시되었던 것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얻은 자료를(재)분석한 것이다.

조사대상자

1) 체면의 개념화 및 구조: 체면의 사회심리학적 개념화를 위해 개방형 질문지와 구조화된 질문지를 실시하였고 대상은 모 기업체에 근무하는 직장인 9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연령은 32세부터 50세까지 30대, 40대와 50대로 분포되었고 평균 연령은 35세였으며 90% 이상이 기혼자였고 거의 대부분이 남성이었다.

표 1. 피험자 분포

구분 \ 대상	성인	학생	학생
체면의 구조	90		
체면욕구		620	
체면민감성			200

2) 체면욕구: 체면 욕구 척도를 대학생 6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3) 체면 민감성: 체면 민감성 척도를 대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도구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의 생각과 기술을 요구한 개방형 질문지(open-ended questionnaire)와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1) 체면의 개념화 및 구조: 체면의 구조와 체면과 관련된 제 현상을 알아보기 위해 개방형 질문지와 구조화된 질문지를 동시에 사용하였다. 구조화된 질문지는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2) 체면욕구: 33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체면 척도를 분석과정에서 체면 욕구(19개 문항)와 체면 민감성(13개 문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3) 체면민감성: 체면 민감성 척도(25개 문항)를 개발(최상진, 최인재, 김기범, 1999)하여 실시하였고 Likert 7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결 과

체면의 심리적 구조

1) 체면이 떨어지는 상황

체면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대학생들과 성인들에게 개방형 질문지(open-ended questionnaire)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응답반응을 2~3명의 대학원생들과 함께 다단계 범주화 과정을 거쳐 분석하였다. 우선 의미가 같은 반응들을 같은 범주로 묶었고, 이를 다시 상위 범주로 묶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체면이 떨어지는 상황 범주는 크게 지위·신분-인격, 지위·신분-능력, 지위·신분-권위의 문제로 연결되는데, 신분이나 지위에 관계되면서 동시에 그 신분과 지위에 적합한 인격, 능력 및 권위의 연결 도식이 성립된다. 자신의 신분이나 지위 혹은 직위, 나이에 맞는 인격, 능력상의 행동 규범을 어겼을 때, 체면

표 2. 체면이 떨어지게 되는 상황범주 및 빈도

상 황 범 주	빈도(학생/성인)
지위·신분-인격의 문제 · 공중도덕(예의범절)을 지키지 못했을 때 · 거짓말이 진실로 밝혀질 경우 · 언행에 대한 실수	118(46)
지위·신분-능력의 문제 · 교수가 지식이 짧을 때 ·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때	114(17)
지위·신분-권위의 문제 · 부끄러운 상황 · 자신의 약점이 노출된 경우 · 무시를 당할 경우	109(16)

손상자의 인격이나 품위가 떨어지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체면의 두 가지 차원인 도덕성-인격 차원 및 능력 차원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성인 집단의 경우, 공중도덕이나 예의범절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에 인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신분과 지위에 관련되는 능력 및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 체면 손상자에 대한 사회적 역량 및 지도력, 능력 등에 의구심을 갖게 된다(표 2 참조). 세 번째 범주는 권위에 관한 것으로 아버지, 선생님, 교수, 교사, 사장 등 사회적 지위-신분 및 역할에 따른 것으로 체면이 떨어질 경우 그 사람의 권위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반응한 것으로 사료된다.

2) 체면의 구조

체면이 구조에 대한 대학생 자료 분석 결과,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는데, 제1요인은 전체변량의 32.3%를 설명하고, 나머지 2에서 6요인까지는 각기 8.2%, 6.9%, 6.5%, 5.7%, 5.1%를 설명하고 있다.

제 1요인에서 높은 부하량을 보인 항목은 신뢰성 없음, 손해를 주는 사람, 무능한 사람, 어렵게 생각한 함 등으로 이 요인은 인격적 측면과 능력적 측면, 권위성 측면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이 요인은 일반적 지위-인격 권력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여기서 지위와 인격이 함께 묶이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 두 요인이 함께 공존함을 기대하는 한 국민의 지위-인격 관련체마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

고 사료된다.

제 2요인에서 높은 요인 부하량을 보인 문항은 자신과 직접 가깝게 관련되는 리더, 즉 직속상관이나 소속집단의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리더쉽과 부정적 측면으로 관련되는 행위속성, 즉 신뢰성 없음, 손해주는 사람, 무능한 사람, 사교성 부족, 성격이 거침, 존경심 감소 등이다. 따라서 이 요인은 소속집단 리더의 지도력 요인으로 명명해 볼 수 있다.

세 번째 요인에서 높은 요인 부하량을 보인 문항은 눈치가 없다, 비합리적인 사람, 조심성 없음, 인격이 천함(부적 부하) 등으로 그 내용을 보면 자기 지위와 관련된 인격을 갖추고 있지 못함을 시사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 요인은 지위관련 인격요인으로 명명해 볼 수 있겠다. 요인4, 5, 6에 대해서는 해석의 난해성을 고려하여 일단 유보하였다.

표 3. 체면의 구조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

문 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지도자 - 자질				
14. 신뢰	.87			
18. 비합리적	.82			
20. 사회적 신분/지위	.69			
11. 손해	-.66			
12. 리더의 말	.66			
16. 조심성	.60			
사회적 신분				
7. 학벌		.75		
5. 천한 가문		.68		
4. 혐오감		.66		
6. 가정교육		.61		
9. 사교성		.53		
사회적 교양				
17. 눈치			.72	
10. 같은 부류			-.70	
15. 능력			.69	
19. 교양			.57	
인격 · 품위				
8. 성격				-.65
13. 품위				-.65
2. 무식				.64
1. 인격				-.64
3. 존경심				.43
설명변량	26.1%	11.7%	11.2%	10.4%

그래서 본 연구자들은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성인 자료를 분석하여 체면의 내적 구조를 파악하였다. 20개의 문항을 탐색적 요인 분석 방법의 하나인 요인수를 4개로 고정시키고 Varimax로 회전시켜 분석을 실시했다. 제 1요인으로 적재된 문항들은 신뢰도, 조심성, 비합리적, 사회적 신분 및 지위 등에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지도자 - 자질** 요인이라 명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사회적 신분**에 관련된 것으로 혐오감, 천한 가문, 가정교육, 사교성 부족 등에 관한 문항들이 적재되었다. 세 번째 요인에 적재된 문항들은 능력, 눈치와 교양에 관한 문항으로 **사회적 교양** 요인으로 명명해 보았다.

네 번째 요인은 성격과 품위, 무식함, 인격, 존경심에 관련된 것으로 **인격 · 품위**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요인 구조는 지위 · 신분 - 인격 · 능력 합치관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고,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은 인격, 품위와 교양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지도자로서의 자질인 능력 또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입증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체면 욕구

33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체면 척도를 실시하여 이를 1차로 분석하였으나, 이 중 19개 문항을 체면 욕구 측정을 위한 것으로, 13개의 문항을 체면 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나누어 이를 요인 분석하였고 1개의 문항은 그 중복성으로 인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최상진 · 양병창, 1999).

제 1요인은 '자존심 방어 욕구' 요인으로 명명하였는데, 남이 나를 무시하는 것을 참을 수 없다거나,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참을 수 없으며, 남들이 다하는 것을 내가 하지 못하는 경우에 부끄럽게 여긴다는 등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고, 23.5%의 설명변량을 나타내고 있다. 제 2요인은 '신분 - 지위 부착 욕구'로 명명하였으며, 그 대표적 문항으로는 나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는 나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거나 사회적 지위나 신분이 낮은 사람으로 보일까봐 걱정한다 등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 요인은 '인격 품위 유지 욕구' 요인으로,

표 4. 체면 욕구의 요인 분석 결과

문 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자존심방어욕구					
19. 무시 참을 수 없다	.83				
20. 약점노출방어	.78				
16. 자존심방어	.69				
18. 무능에 대한 부끄러움	.57				
신분 - 지위 부착욕구					
31. 지위, 신분	.67				
32. 대우	.63				
23. 약한 모습	.59				
22. 능력부족	.56				
인격 - 품위 유지욕구					
6. 교양중요시	.81				
4. 인격중요시	.69				
12. 격식중요시	.66				
21. 지위상행동	.58				
집단귀속욕구					
34. 동조	.74				
28. 타인기준	.68				
9. 타인의식	.59				
29. 실수조심	.52				
우월감추구욕구					
11. 우월	.68				
10. 높은 지위	.58				
5. 남들보다 못함	.57				
Eigen Value	4.5	2.2	1.8	1.3	1.2
설명변량(%)	23.5	11.4	9.6	6.9	6.1
Cronbach α	.75	.69	.66	.61	.51

교양과 인격, 격식과 지위에 맞는 행동 등을 강조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네 번째 요인은 '집단귀속 욕구'로 명명하였는 바, 타인의 행동이 자신의 행동 기준이 되고 타인이 비교 대상이 된다는 등의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믿고, 남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고 싶어하고, 남들이 나보다 잘한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상한다 등의 문항들로 구성된 '우월감 추구 욕구' 요인은 체면 욕구의 마지막 요인이다.

본문에서 체면은 사회적 성취욕구와 자기완성욕구가 있다고 언급하였는데, 자신의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우리 사회에서 권위와 힘을 누릴 수 있는 신분 및 지위에 대한 욕구는 도덕적으로나 인격

적으로, 그리고 능력면에서 갖추어야 할 것을 갖추고 체면을 지키거나 세우려는 동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생활 속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외향적이고 치례적인 면에 치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지위와 신분이 높지 않을 때와 상대방보다 우월하다고 믿고 싶어 할 때 혹은 그렇다고 생각할 때 체면 욕구는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험자들이 체면에 대해 어느 정도 민감한지를 알아보고자, 체면 척도 중 욕구 문항을 빼 나 머지는 민감성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요인 분석하였다. 주성분 분석과 Varimax 회전으로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모두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첫 번째 요인인 '신분 - 지위 민감' 요인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편이고 남에게 부탁할 때 거절당할까 봐 걱정하는 편이다, 남에게 교양없는 사람으로 보일까 걱정하는 편이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요인은 '인격 민감' 요인으로 명명하였는데, 명예가 중요하다고 믿는 다거나, 전통적인 예절이나 관습을 중시하는 편이거나, 체면이 떨어지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다라는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체면 욕구와 민감성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첫 번째 민감성 요인인 신분지위에 대한 민감성은 신분 - 지위 부착 욕구와 .56의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집단 귀속 욕구와도 .58의 상관을, 그리고 자존심 방어 욕구와도 .54의 비교적 높은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두 번째 민감성 요인인 인격 민감성 요인은 신분 - 지위 부착 욕구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

체면 민감성

본 연구자들은 체면민감성이 타인의식과 많은 관련이 있다(진승범, 1995)고 보고, 체면욕구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체면 민감성 척도(최상진·최인재·김기범, 1999)를 정교하게 개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모두 2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Likert 7점 척도를 사용한 이 척도 중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한 16개의 문항을 주성분 분석과 Varimax 회전으로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 체면 민감성의 요인 분석 결과

문항	요인1	요인2
신분 - 지위 민감		
25. 타인 시선의식	.73	
2. 부탁거절걱정	.72	
3. 주장묵살시실망	.70	
24. 교양중요시	.62	
17. 질문에 답변못할시창피	.55	
1. 품위중요시	.55	
7. 체면때문에	.49	
27. 역할	.48	
인격민감		
8. 명예중요시		.73
13. 체면떨어지는 일하지 않는다		.62
15. 체면 때문에 한다		.54
33. 체면 때문에 하는 일 종종 있다.		.52
30. 전통적 예절 관습 중요시		.49
Eigen Value	4.35	1.42
설명변량(%)	33.47	10.93
Cronbach α	.81	.61

표 6. 체면 욕구와 체면 민감성 요인간의 상관

	욕구1	욕구2	욕구3	욕구4	욕구5	욕구6
민감성1	.54**	.56**	.19**	.58**	.44**	.72**
민감성2	.31**	.41**	.36**	.38**	.35**	.55**
민감성3	.52**	.57**	.29**	.57**	.46**	.74**

** $p < .001$

먼저 6개의 요인이 추출되어, 본 연구자들은 요인의 수를 3개로 보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어 요인의 수를 3개로 고정시켜 분석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남의 평가를 의식하고, 나에게 남의 생각에 민감하며, 남의 눈치를 보고, 남에게 어떻게 비취질까를 걱정하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등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창피 의식성 체면' 요인으로 명명하였고, 두 번째 요인은 '자과 의식성 체면' 요인으로, 위신 때문에 부탁을 망설이고,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위신 때문에 하며,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고 남에게 부탁할 때 거절당할까봐 걱정하는 등의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세 번째 요인은 사석에서도 교양있게 행동하려고

표 8. 체면 민감성 척도의 요인 분석 결과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창피의식성 체면			
20. 남의 평가 의식	.72		
16. 나의 모습 염려	.68		
17. 남의 생각에 민감	.63		
18. 남의 눈치 봄	.59		
10. 타인 시선 의식	.58		
자과의식성 체면			
8. 나의 의견 거절 - 부끄러움		.78	
13. 부탁 거절 걱정		.70	
14. 위신 - 부탁 망설임		.66	
5. 나의 주장 거절 - 실망		.66	
24. 질문에 대답 못함 - 당황		.56	
15. 위신 때문에 하기싫은 일함		.54	
사회격식성 체면			
3. 사석에서 교양있게			.72
2. 예절중시			.69
1. 격식을 차림			.68
4. 대화시 실수할까봐 조심			.58
23. 번거롭더라도 격식을 지킴			.68
Eigen Value	7.46	2.84	2.05
설명변량(%)	28.40	12.53	8.09
Cronbach α	.82	.70	.70

노력하고, 예절을 중시하며, 격식을 차리고, 남들과 대화할 때 실수할까봐 조심하는 등의 문항들로 구성 되어 있어 '사회격식성 체면'으로 명명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남 앞에서 체면을 차리거나 남의 체면을 세워주는 체면행동은 상호의 자존심을 높여주거나 방어할 수 있고, 사회적 집단에 대한 귀속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체면에 대한 욕구가 있고 체면을 지키거나 세움으로써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한다. 이러한 체면의 욕구 및 체면을 유지하려는 동기는 분명 한국사회에서 도식화된 행동으로 나타나 그 기능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그 동안의 체면과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 체면 지키는 것을 중시하는 사람들의 특성으로는 자존심이 낮고 외부적 통제소재를 갖고 있으며(최창호, 1993),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일수록 상대방이 자

신을 낮추는 언행을 하면 대인간 호감이 높아지고 처벌의 정도도 완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임영식, 1994). 또한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평가에 민감(최창호, 1993)한데, 남성보다는 여성이 체면유지에 보다 민감하고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타인의 평가에 남성보다 민감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진승범, 1995). 즉 타인의식적 체면에 민감한 사람일수록 사회적 불안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체면민감성은 심리적 스트레스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이러한 심리적 스트레스는 신체스트레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최상진·최인재, 1999; 최상진·최인재·김기범, 1999; 최인재, 1999).

일상생활에서의 대인관계 및 상호작용에서 체면은 지켜야 하는 사회·문화적 규범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심리적 욕구 및 동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논 의

지금까지 체면에 대한 분석적 고찰과 재구성을 통해 체면의 구조에 대한 탐색을 시도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체면의 구조, 욕구 및 민감성을 측정해 보았다.

본 연구자들은 한국사회에서 체면을 '남을 대하기에 떳떳한 도리나 얼굴'로 정의하였고, 체면을 지키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도리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라 했다. 그래서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부끄러움에는 자신이 자신을 보고 느끼는 자괴성 부끄러움과 남에게 비춰진 자신을 보고 느끼는 창피성 부끄러움이 있다. 즉, 체면을 지키지 못하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부끄러움에 대한 의식은 타인에 대한 민감성으로 이어져, 체면을 지키려는 욕구와 동기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체면을 지키는 것에 더욱 민감하게 된다.

또한, 본 연구자들은 체면을 두 가지 구분하였는데, 도덕성 인격 체면과 능력 체면이 그것이다. 그러나 현

재 우리 사회에는 체면의 본질적 의미보다는 겉으로 드러난 신분과 지위를 과시하거나 현시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다. 즉 자신의 신분 및 지위를 현시하기 위한 체면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 사람들의 신분·지위·인격·능력의 합치관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신분과 지위를 얻는 것이 인격이나 능력에서의 우위를 얻는 것이라는 생각과 연결되어 있어 신분과 지위에 따른 체면을 지키려는데 더욱 민감하게 되고 그러한 욕구를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있고, 그러한 체면은 특정 형태의 행태를 띠고 기능을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체면과 권위의 문제라든지, 체면의 구체적 행태와 욕구에 대한 실험연구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동아일보사 편(1991). 한국인 진단: 자기 성찰을 통해 본 우리의 지화상. 서울: 동아일보사.
- 윤태림(1984). 한국인. 서울: 현암사.
- 임영식(1993). 핑계들은 사람의 특성과 핑계 유형이 핑계대는 사람에 대한 처벌과 호감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조금호(1997). 순자에 나타난 심리학적 함의(Ⅲ). 예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2), 1-27.
- 진승범(1995). 체면과 사회적 불안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봉영(1997). 한국문화의 성격. 서울: 사계절.
- 최상진(1997b). 한국인의 심리특성. 한국심리학회(편), 현대심리학의 이해(pp. 695-766). 서울: 학문사.
- 최상진·김기범(1998). 체면의 내적 구조.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 논문집, 559-577.
- 최상진·박정열·이장주(1997). 한국인의 우쭐심리. 한국심리학회 97 연차학술대회 학술논문발표집.
- 최상진·양병창(1999). 체면의 구조와 임상적 의미분석.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 최상진·유승엽(1992). 한국인의 체면에 대한사회심리

- 학적 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6(2), 137-157.
- 최상진·최인재(1999). 정, 체면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인쇄중).
- 최상진·최인재·김기범(1999). 정, 체면민감성과 스트레스, 문제대응방식간의 관계. 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동계학술발표회, 28-44.
- 최상진·한규석(1998a). 교류 행위를 통해 본 한국인. 국제한국학회(편), 한국문화와 한국인(pp. 161-193). 서울: 세계절.
- 최인재(1999). 정, 우리성, 체면이 문제대응방식, 스트레스 및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재석(1994).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서울: 현음사.
- 최창호(1993). 체면과 자아존중감, 통제성향의 관계.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글학회(1994). 우리말 큰사전. 서울: 어문각.
- Cheng, C. Y.(1986). The concept of face and its Confucian roots. *Journal of Chinese Philosophy*, 12, 329-348.
- Choi, S. C., & Kim, K.(1999c). The psychological structure of Chemyon. Paper presented at the 3rd Conference of the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Taipei, August 4-7, Taiwan.
- Choi, S. C., & Kim, U.(1992). Multifaceted analysed of Chemyon(Social Face): An indigenous Korean perspective. Colloquium presentation at 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May 7, 1992.
- Choi, S. C., Kim, U., & Kim, D-I.(1998). Multifaceted analyses of Chemyon ("Social face"): An indigenous Korean perspective. In K. Leung, U. Kim, S. Yamaguchi, & Y. Kashima. (Eds), *Progress in Asian social psychology Volume 1* (pp. 3-22). Singapore: John Wiley & Sons, Inc.
- Gao, G.(1996). Self and other: A chinese perspective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W. B., Gudykunst, S. Ting-Toomey, & T. Nishida. (Eds.), *Communication in personal relationships across cultures* (pp. 81-101).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Gao, G., Ting-Toomey, S. Gudykunst, W. B.(1996). Chinese communication processes. In M. H., Bond. (Ed.), *The Handbook of Chinese psychology* (pp. 280-293). Oxford University Press.
- Goffman, E.(1967). *Interaction ritual: Essays on face-to-face behavior*. New York: Pantheon.
- Ho, D. Y.(1976). On the concept of fac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1, 867-884.
- Hu, H. C.(1944). The Chinese concepts of face. *American Anthropologist*, 46, 45-64.
- Lebra, T. S.(1976). *Japanese patterns of behavior*.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Gudykunst, W. B., & Nishida, T.(1994). *Bridging Japanese/North American differences*.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The Internal Structure of the Korean Social Face(Chemyon, 體面)

Sang-Chin Choi and Kibum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In Confucian cultures, the phenomena and notion of Chemyon(體面, social face) pervade widely in the social contexts of interpersonal behaviors. The Korean's consciousness about Chemyon of his own as well as his counterpart person's is so strong as to sometimes manifest Chemyon behavior against his or her true self and authentic mind. From the viewpoint of Western values of honesty and internal consistency between behavior and self, such Chemyon behaviors are often seen or interpreted as implying that Koreans show inconsistency between inner minds and outer behaviors or do not have solid selves, or in its extreme tell lies without a strong sense of guilt. The concept of (social) face in Western culture has been dealt with in psychological literatures as having significance in the context of self-esteem or impression-management. The Chemyon in Confucian cultures, besides the social dimension of its significance, is directly linked to the concept of human being. According to Confucian philosophy, Chemyon is grounded on the quality standard of humanness, 禮義廉恥(Behaving according to propriety and knowing shame when propriety is violated). The philosophy is reflected even in folk way of cursing a person who is not aware of Chemyon as "the bitch like Kum-so(禽獸, birds and animals)". In the Confucian model of human being, losing social face should induce or result in sense of shame, which differentiates human beings from non-human-beings. Shame can emerge in two ways. One way is from knowing alone that he or she behaved him/herself against the standard of Chemyon. The other way is from knowing through others who reveal despising responses to one's demeaning behavior of violating Chemyon standard. The former is named here as 廉恥體面(self-shamed Chemyon) and the latter as 羞恥體面(other-shamed Chemyon). In Confucian teaching, 廉恥體面 was given higher priority and emphasis over 羞恥體面. However, the notions and practices of Chemyon prescribed in Confucian teachings have gone through changes incorporating secular societal and personal interests and values. For instance, 羞恥體面 overrides 廉恥體面 in its prevalence and importance 廉恥體面 in contemporary Korean society. The sources of shame and Chemyon also reflect substantial changes along with social and cultural transformation. Korean people in the past was conscious more about shame associated with moral inadequacy than shame coming from one's incompetence. In the present, however, it shows a reverse tendency. In the past, self-construed shame and Chemyon which comes from one's own reflection on his or her behavior was given higher priority and importance than other-directed show-up Chemyon which is directed toward demonstrating outwardly one's own superiority in ability, power and/or morality. In the present, the latter prevails over the former. Chemyon practices were categorized in terms of the target for which the Chemyon behavior was intended to serve; self-directed Chemyon and other-directed Chemyon. The Chemyon confounded with ritualistic symbolism in Korean culture was identified and named as Uiryesung Chemyon(儀禮性 體面). Finally, Korean Chemyon was compared with Chinese Lian and Mianzi and Japanese Mentz.